

演 題 抄 錄

- 1 -

유행성 출혈열의 임상상

경희의대 신장내과

최철준 · 신동복 · 최화립

권오선 · 임천규 · 김명재

연자들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유행성 출혈열로 진단되어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101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관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) 유행성 출혈열은 30대 남자와 40대 여자에 빈발하였으며 남녀비는 4:1이었다.

2) 임상상으로 발열이 빈발하여 88.8%였고 구토, 복통, 결막과 액와의 점상출혈, 설사, 혈뇨, 기침등의 순이었다.

3) 검사소견은 백혈구수는 70.4%에서 증가하였고 혈소판수는 57.7%에서 70,000/mm³미만이었다. FDP의 상승은 10.2%, Fibrinogen의 상승은 2%였으며 두에에서 측정된 PF₄는 정상범위였고 β-TG는 모두 증가되어 있었다. 혈청 C₃는 20.0%, C₄는 21.4%에서 저하되어 있었다.

노비증은 평균 1.021이었고 노단백은 거의 전례에서, 혈뇨는 75.5%에서, 농뇨는 35.7%에서 관찰되었다. 고빌리루빈혈증은 약 5%에서, GOT, GPT의 상승은 약 반수에서, BUN, creatinine의 상승은 거의 전례에서 관찰되었다. 고칼륨혈증은 16.3%에서, 공복시 고혈당증은 17.3%에서, 고칼슘혈증은 73.5%에서, 고인산혈증은 48.1%에서 관찰되었다.

4) 췌노환자군에서 노 Osmolality는 모두 350 mOsm/kg 이하로 낮았고 노 Na는 70.2%에서 40 mEq/L 이상으로 높았으며 Renal failure index는 87.5%에서 1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었다.

5) 흉부 X선 촬영에서 57.5%가 비정상소견을 보였고 그중에서 흉막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. 복부초음파 검사상 90.6%가 비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그중에서 echo 증가 소견이 가장 많았다.

6) 임상경과는 발열기는 평균 7.3일, 췌노기는 평균 5.4일이었다. 저혈압은 38%에서 관찰되었고 사망율은

9.4%이었다. 치료로서 혈액투석은 39례(40%)에서 시행했으며 대부분 5회이하의 혈액투석을 받았다.

- 2 -

한국형 출혈열 14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

고신의대 내과

육동민 · 홍관표 · 김인영

박진석 · 이재우 · 이시래

한국형 출혈열은 근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발생분포를 보이고 발생빈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. 이에 연자들은 역학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그 발생빈도가 낮은 경남 및 경북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한국형 출혈열 환자중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최근 3년간 고신의대 내과에서 경험한 14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임상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.

지역별분포를 보면 함안군 2례, 함천군, 진양군, 산청군, 거창군, 사천군, 하동군, 진주시, 마산시, 진해시 각 1례로 경남에서 11례, 월성군, 영양군, 경주시 각 1례로 경북에서 3례, 모두 14례였으며 그중 농촌형이 10례(71.4%), 도시형이 4례(28.6%)였고, 월별빈도를 보면 7월이 2례(14.3%), 11월이 4례(28.6%), 12월이 5례(35.7%)였다.

연령별로는 40대가 5례(35.7%)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30대 및 50대가 각각 3례(21.4%)였으며, 성별로는 남자가 12례(85.7%), 여자가 2례(14.3%)로 남녀비는 6:1이었다.

입원시 병기로는 췌노기가 9례(64.3%)로 가장 많았고, 이노기 4례(28.6%), 저혈압기 1례(7.1%)였다.

주요임상소견으로는 오심 11례(78.6%), 복통 10례(71.4%), 복부팽만감 9례(64.3%), 결막출혈 및 구토가 각각 8례(57.1%), 요통, 두통 및 근육통이 각각 7례(50.0%), 안면부종이 6례(42.9%), 결막하출혈이 5례(35.7%)였다.

검사실성적으로는 말초혈액검사상 혈색소치가 16 gm%이상의 증가를 보인 경우가 3례(21.4%), 백혈구증다증을 보인 경우는 11례(78.6%), 혈소판감소증은 8례(57.1%)에서 볼 수 있었다. 뇨검사상 단백뇨 및 혈